

후원자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후원자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언어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대회는 청소년들이 언어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참가자들은 선행 지식 없이도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자가 작동하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원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며,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한국언어학올림피아드는 단순한 경시대회를 넘어 청소년들에게 학문적 열정과 창의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언어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학적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대회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탓에 많은 청소년들이 높은 참가비와 여행 경비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저희 한국언어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는 현재 여러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언어학 교육 플랫폼 개발,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언어학 워크숍, 청소년을 위한 국내 또는 국제 단위의 언어학 캠프 등 우리의 비전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후원자님의 지원은 이러한 잠재력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실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후원자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지원은 단순히 한 대회를 넘어, 청소년들의 꿈과 잠재력을 펼치는 전방위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제약에 막힌 청소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고, 신규 사업 계획들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미래 인재 육성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언어의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학문적 열정을 꽃피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언어학 교육의 가치를 알리고, 청소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언어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 공동대표 채유정 · 김민규 올림

○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무엇입니까?

→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이하 IOL)**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국내 예선대회**입니다. IOL은 전세계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언어와 언어학을 주제로 하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통해 실력을 겨루는 국제 경시대회의 일종입니다. IOL은 2003년에 시작되어 현재 매년 4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어학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참가자들은 생소한 언어와 문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그것을 분석하고 해독하는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과거에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또는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등 학회 및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사무를 맡아서 진행해 왔으나, 2019년부터 이러한 기관들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과거 언어학 올림피아드에 참여했던 국가대표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독자적으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올림피아드 진행과 국가대표 선발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위의 대표는 한국외대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채유정** 교수와 과거 국가대표 **김민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인지과학 박사과정) 2인이 맡고 있습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에게 언어의 다양성을 일깨운다.
- 청소년들의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응용력을 고취시킨다.
- 청소년들에게 전공 및 직업으로서 언어학의 가능성에 대해 널리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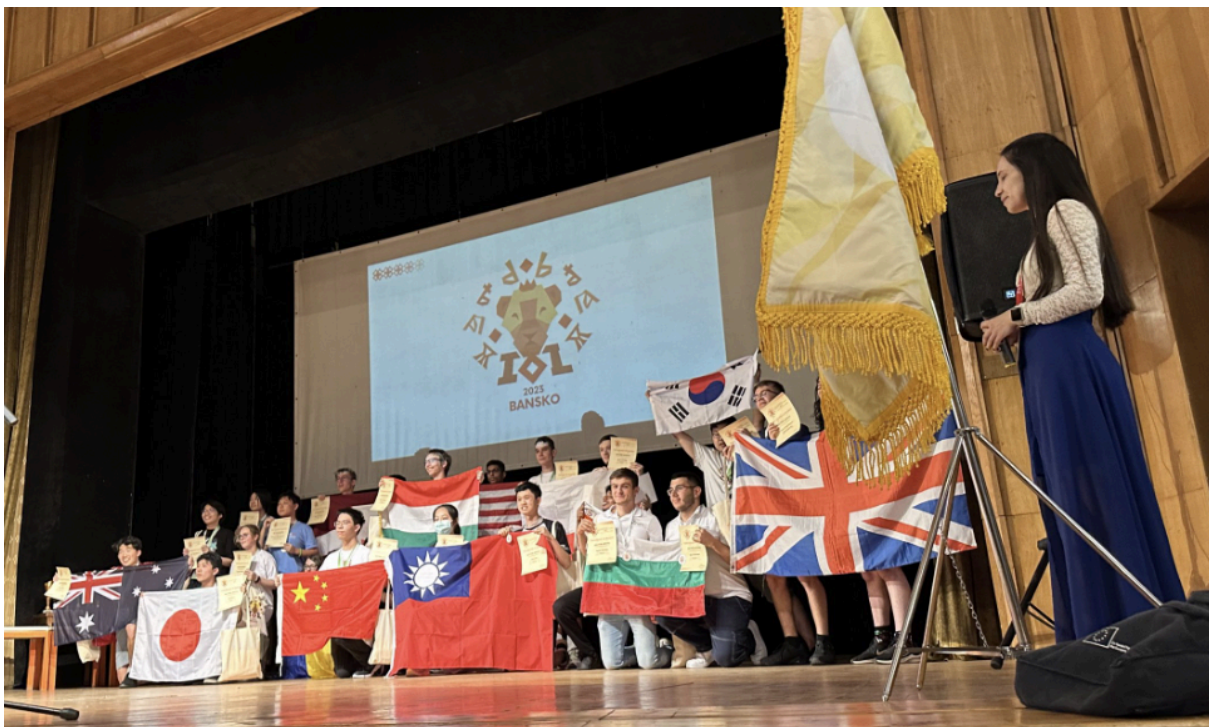
○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해 왔습니까?

→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는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만 치우치지 않고, 언어학과 세계의 다양한 언어 및 문자의 원리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한다는 이념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언어학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높고 배울 바가 많은 훈민정음과 한글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일반적인 공교육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신선하게 여기고, 높은 흥미를 가집니다. 다음은 조직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 (1)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 매년 11월, 조직위원회가 직접 고안하고 출제한 문제들로 대회를 치룹니다. 시험문제의 주제는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태평양 외딴 섬의 소수 민족 언어부터 고대 상형문자까지 각종 언어와 문자에 대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또한, 매년 최소 한 문제는 훈민정음 또는 한국어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여 참가하는 학생들의 한글 및 한국어에 대한 학습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언어학 겨울학교** - 매년 겨울, 올림피아드를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에서 5~6일간 합숙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캠프는 2024년 1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캠프에서 참가 학생들은 대학교 학부 수준의 심도있는 언어학 내용을 학습하고 다양한 외국어를 직접 발음하며 공부해 보았으며, 제주어와 같이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에 대한 깊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또한, 팀별로 모여 세계 여러 언어의 한글 표기법을 고안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모두의 언올** -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청소년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사는 곳에 제한 없이 누구나 언어와 문자에 관한 퍼즐을 풀어볼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공하고, 고득점자에게는 선물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일반인들에게도 언어와 언어학의 즐거움을 널리 퍼뜨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4) **교과서 및 유튜브 채널 (진행 중)** - 공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학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대 학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여 아직 진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2022년도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 학생.

문제 #8 (15 점). 조선 4대 국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편찬한 《훈민정음》에는 현대 한글의 기원이 된 28개 글자의 창제 원리와 그 발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있다.

다음은 《훈민정음 언해》 중 <초성해>의 일부이다.

ㅈ는 니쏘리니 卽즉字쫙 처섬 피아나는 소리 그투니
글바쓰면 慈쫙ㅎ字쫙 처섬 피아나는 소리 그투니라

이를 현대 국어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ㅈ’는 잇소리로, ‘卽’ (곧 즉) 자(字)의 첫소리와 같고,
가로로 나란히 두 번 쓰면 ‘慈’ (사랑 자) 자(字)의 첫소리와 같다.

이를 통해, ‘慈’의 당시 한자음은 ‘ㅈ’를 첫소리로 가졌음을 알 수 있다. ‘慈’의 당시 한자음은 ‘쫙’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가운데소리 ‘·’(아래아)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모음 글자이다. 이외에도 《훈민정음》에는 현대 한글에는 사용되지 않는 ‘ㅎ’(옛이음), ‘ㅎ’(여린히음), ‘ㅎ’(쌍히음), ‘ㅅ’(반시옷), ‘ㅆ’(여린비읍), ‘ㅆ’(여린미음) 등이 등장한다.

↑ 2021년도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문제. 훈민정음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문제 #5 (13 점). 다음은 한글 맞춤법과 “조선어 신 철자법”으로 각각 나타낸 한국어 문장들이다.

한글 맞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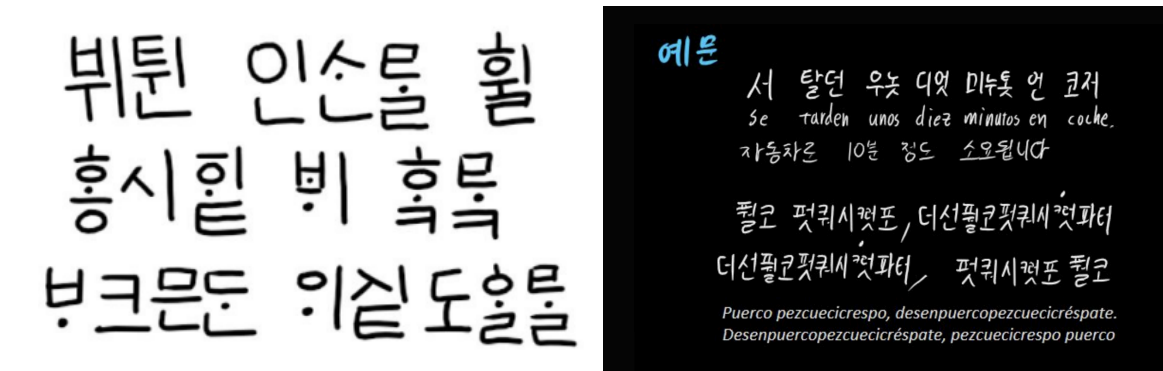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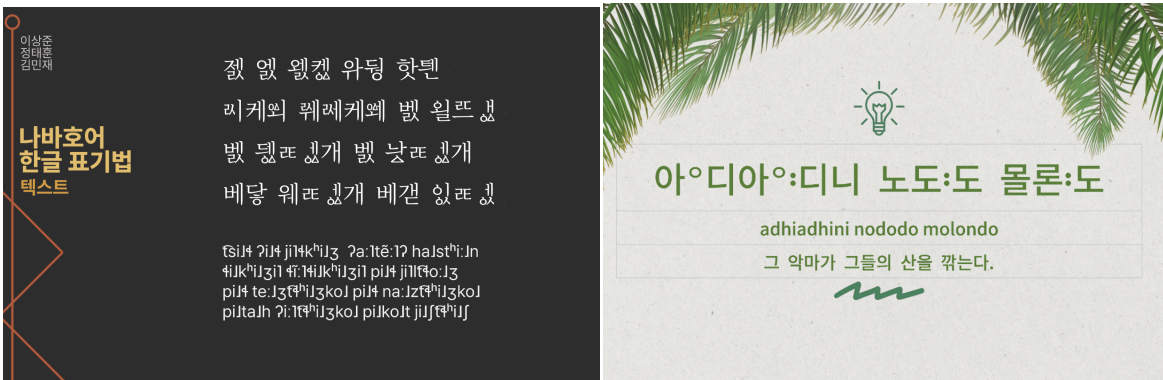
조선어 신 철자법

- | | |
|------------------------|---------------------|
| 1. 그리운 이름을 부른다. | 그뤼니 이름을 부른다. |
| 2. 선생님을 불러서 묻는다. | 선생님을 부터서 뭇는다. |
| 3. 좁은 길을 따라 웃으며 걸었다. | 좁은 길을 따락 웃으며 걸었다. |
| 4. 어머니 말씀을 듣고 따른다. | 어머니 말씀 을 뚱고 따른다. |
| 5. 씨감자를 고르고 골라 땅에 묻는다. | 씨감자를 고트고 풀락 땅에 묻는다. |

↑ 2019년도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문제. 북한 언어학자 김두봉의 신 철자법에 관한 문제.



↑ 2024년도 언어학 겨울학교 중 참가자들이 고안한 외국어용 한글 표기법을 들고 있는 모습.



↑ 청소년들이 직접 고안한 세계 여러 언어를 위한 훈민정음 기반 표기법.



↑ 2022년도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단.



↑ 2019년도 대한민국 용인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외국 대표단.

○ 후원금 규모에 따른 사용처

- **연간 500만원**의 후원금으로는 국내 올림피아드 대회 사무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 및 경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급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조교, 강이자, 출제 및 채점위원들에게 보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000만원**의 후원금으로는 매년 **‘언어학 겨울학교’**를 **참가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참가비(5일 약 35만원)가 부담되어 참여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연자 및 교수 등을 초청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간 3,000만원**의 후원금으로는 매년 국제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학생 전원에게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어학 올림피아드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 참가 학생 개인이 **항공 운임 등을 전부 사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5,000만원**의 후원금으로는 위에 언급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서 편찬,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과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억원**의 후원금으로는 **국제적인 ‘언어학 학교’ 캠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한국에서 언어와 문자, 그리고 훈민정음과 한글에 관련된 캠프를 진행하고, 기존에 ‘언어학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국제적인 스케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끝맺으며

언어학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 사고와 문화, 그리고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언어와 문자에 내재된 복잡하고 흥미로운 세계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언어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체험하고, 나아가 언어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인공지능, 기계 번역, 챗봇 등 언어 기술이 핵심이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언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언어학의 가능성을 직업과 진로로서 제시하며, 그들의 꿈과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중히 귀하의 후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논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070-8080-5264

이메일 klo@krlo.kr